

주간 통일정세

2016-18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5.1	北, 당대회 앞두고 민수대의사당에 김일성 부자 조각상 설치(연합뉴스) 北, 당대회 앞두고 대형 발전소 잇달아 준공(연합뉴스) 北, 노동절 맞아 김정은에 충성 경제성과 독려(연합뉴스)		
	5.2	北 '70일 전투' 오늘 종료... '당대회 모드로 전환'(연합뉴스)		
	5.3	北 노동당 7차 대회 참가자들 평양 집결(연합뉴스) 北 최전방에 특별경제특구 발령... 당대회 전후 도발하냐(연합뉴스) 北, 당대회 앞두고 끝내지 않은 공사도 준공식(자유아시아방송) 北, 당대회 기념해 모든 가정에 전자제품 제공설(데일리NK) 北 "70일 전투,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 열어" 주장(연합뉴스)		
		5.4	北 김정은 당대회서 '공화국 영웅' 칭호 받나(연합뉴스) 36년만의 北 당대회 D2... 김정은 우상화 무대될 듯(연합뉴스) 북한, 당대회에 외국기자 100명 이상 받아들여(연합뉴스) 北, 7차 당대회 D2... 분위기 띄우기 본격화(연합뉴스) 北 당대회 D2... "김정은 21세기 태양" 집권 5년 치적 선전(연합뉴스)	
			5.5	北 당대회 D1... 김여정 장관급 자리 오르나(연합뉴스) 北, 지정된 장소서 당대회 방영 TV 시청하리(연합뉴스) 北 당대회 D1... 노동신문, 뜻깊은 날 박두(연합뉴스)
				5.6
	5.7			

		<p><北당대회> 김정은 양복차림 눈길·직책·대외정책 바뀐다(연합뉴스)</p> <p><北당대회> 집행부에 제재 대상자 대거 포함(연합뉴스)</p> <p>北 당대회 2일차·1박2일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 지속(연합뉴스)</p> <p><北당대회> 日언론, 北 고립 부각·김정은, 김일성 의식한 듯(연합뉴스)</p> <p>北, 당대회 장면 이틀째 녹화방송·김정은 육성 포함안돼(연합뉴스)</p> <p><北당대회> 中 언론, 당대회 개막 사실위주 보도(연합뉴스)</p> <p><北당대회> 北매체, 당대회 개최소식 대대적 보도(연합뉴스)</p>
경제	5.3	<p>유엔제재 2개월·북중접경 中여행사들, 北관광상품 폐기했다(연합뉴스)</p> <p>단동서 北과 거래하던 中 기업들 상당수 철수(자유아시아방송)</p>
	5.4	<p>北 고려항공, 방콕 노선 운항 중단한 듯(미국의소리)</p> <p>北, 쿠웨이트에 식당 열려다 포기(자유아시아방송)</p>
사회 문화	5.1	<p>'北中 국경루트' 북한산 필로폰 수 만 명분 국내 밀반입 유통돼(연합뉴스)</p>
	5.4	<p>북한 당국, 해외근로자 일부에 철수 명령(자유아시아방송)</p> <p>北 주민들, 당대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자유아시아방송)</p> <p>BBC "김일성대생들, 영어는 수준급이지만 인터넷 앞에선 찔찔"(연합뉴스)</p>
	5.5	<p>北, 南 일부 언론기관 홈페이지 접속 차단(자유아시아방송)</p> <p>北 매체, 금연운동 덕분에 흡연을 뚜렷이 감소(자유아시아방송)</p>
외교 국방	5.1	<p>조선총련 北 당대회 대표단 평양 도착(연합뉴스)</p> <p>안보리 성명, 러시아 변수로 채택 지연·北도발 엄중 방증(연합뉴스)</p> <p>화학무기금지기구 총장, 비가입 북한 골칫거리·핵만 문제 아냐(연합뉴스)</p> <p>北, 대성공 주장한 SLBM도 공중 폭발했다·2~3조각으로 깨져(연합뉴스)</p>
	5.2	<p>中, 北당대회에 대표단 아예 안보낼 듯·北 초청도 안해(연합뉴스)</p> <p>日, 핵두뇌 北유출 차단·교토대 교수에 北재입국 금지(연합뉴스)</p> <p>38노스, 북한 5차 핵실험 준비 징후 불확실(연합뉴스)</p>
	5.3	<p>NYT, 김정은 코너로 모는 것 위함·새 평화제이시 美 검토해야(연합뉴스)</p> <p>中 외교부, 北당대회 대표단 파견 여부에 "정보없다"(연합뉴스)</p> <p>北, 당대회 맞아 각국이 축전·4단체는 명단에 없어(연합뉴스)</p>
	5.4	<p>北, 북미 사이 생사 판가를 위한 물리적 결산만 남아(연합뉴스)</p> <p>도콜라 KEI 부소장 "북,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선언 가능성"(연합뉴스)</p> <p>힐러리 외교책사 웬디 셔먼, 北 쿠데타 상황 상정해야(연합뉴스)</p> <p>러셀 "북핵 불용·北개단게 하려고 제재" 韓학자들 핵무장 공방(연합뉴스)</p> <p>中 정치평론가, 김정은 정권 10~15년 내 붕괴할 것(연합뉴스)</p> <p>38노스, 북 지난달 SLBM실험 잠수함에서 직접 진행한듯(연합뉴스)</p>
	5.5	<p><北당대회> 중국, 북한의 개혁개방 메시지 여부에 주목(연합뉴스)</p>

	<p>북한 대사관 파키스탄서 면세주류 초과 반입하다 걸려(연합뉴스)</p> <p>방북 노벨상 수상자 3명, 김일성대 강연 등 일정 마무리(연합뉴스)</p> <p>38노스, 북한 핵실험 강행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연합뉴스)</p>
5.6	<p>中, 당대회 북한에 “국제사회 호소 들으라” 촉구(연합뉴스)</p> <p><北당대회> 北 대회前 5차 핵실험 자제·中 의식했나(연합뉴스)</p> <p><北당대회> 일본 정부, 정보 분석·도발 경계 병행(연합뉴스)</p> <p>러, 북한과의 금융거래 전면 동결·광물 수입도 중단(연합뉴스)</p> <p>몰타 언론, 몰타서 현금 반출하려던 북한 여성 적발(연합뉴스)</p>
5.7	<p>美 “北, 황무지와 고립에서 벗어나라”...도발 자제 촉구(연합뉴스)</p> <p><北당대회> 中공신당, 중조관계 고도로 중시·축전발송(연합뉴스)</p> <p><北당대회> 中당국, 축전서 김정은 언급 인해(연합뉴스)</p> <p><北당대회> 외신 핵경제 병진노선 주목·제재로 실패할 것(연합뉴스)</p> <p>노벨상 방북 대표단 과학 기술 교류가 北체제 변혁 시작(연합뉴스)</p> <p>38노스, 北 5차핵실험 준비중인 듯·조만간 강행 가능성(연합뉴스)</p>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5. 4.

■ 北 김정은 당대회서 ‘공화국 영웅’ 칭호 받나(연합뉴스)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을지 주목됨.
- ‘위대한 수령’으로 불린 김일성 주석이 3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차례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지만, 김 제1위원장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부여받지 못함.
- 노동당 제1비서를 겸하고 있는 김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와 동등한 반열의 리더십을 과시하려면 ‘공화국 영웅’ 칭호가 필수라는 분석이 나옴. 이 칭호가 없이는 ‘백두혈통’의 후광에 의존하는 기존의 통치에서 벗어나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선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임.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에 진행한 70일 전투와 군사적 도발(핵·미사일 시험)은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워 ‘공화국 영웅’을 만들기 위해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라며 “당 대회에서 참가자 일부에게 국가수훈을 수여하면서 자신(김정은)도 (영웅 칭호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함.

■ 36년만의 北 당대회 D-2...김정은 우상화 무대될 듯(연합뉴스)

- 북한은 오는 6일 개막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우상화의 무대가 될 것으로 알려짐.
- 36년 만에 개최되는 당 대회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려면 김 제1위원장의 위상을 김일성·김정일 수준까지 격상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정부 당국자는 4일 “2월 11일 방영된 조선기록영화 ‘광명성 4호 성과적 발사’의 마지막 영상에 김일성, 김정일의 태양상과 유사한 형태의 김정은 태양상이 최초로 등장했다”며 “이 기록영화는 이후 조선중앙TV를 통해 16회 방영됐고, 모란봉악단의 공연 배경 스크린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당 대회 이후에는 제대로 된 김정은 태양상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회를 계기로 김 제1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본격화할 것임을 시사함.

2016. 5. 7.

■ **北김정은, 사회주의 위업완성의 새로운 이정표...당대회 개회사(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6일 개막한 노동당 제7차 당 대회에서 “이번 당 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이라고 밝힘.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TV를 통해 녹화방영된 당 대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 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함.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개회사 전문】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전군·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올 뱃심과 신심 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장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 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 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이 기간 우리당은 자기 대열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먼 길을 걸어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한 김일 동지, 최현 동지, 오백룡 동지, 오진우 동지, 최광 동지, 림춘수 동지, 박성철 동지, 정문섭 동지, 리을설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

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허담 동지, 연형목 동지, 김종린 동지, 허정숙 동지,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지, 김양건 동지, 전병호 동지, 리제강 동지, 리용철 동지와 김락희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충직한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

조명록 동지, 김광진 동지, 김두남 동지, 전재선 동지, 윤치호 동지, 리동춘 동지, 김학유 동지, 비롯해 혁명 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귀중한 선군혁명전투들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또한 리승기 선생, 백인준 선생, 유원준 동지, 리상벽 동지, 박용순 동지를 비롯하여 과학, 문화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바친 원사, 인민체육인들, 한덕수 동지, 최덕신 선생, 리인모 동지, 림원식 동지를 비롯한 잊을 수 없는 혁명동지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였으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 조국에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 세계자주화 위업을 위한 투쟁의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열사들,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는 주체혁명 위업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 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이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

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인민 단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공세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강그리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 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지만, 우리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당 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쳤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역사의 폭풍을 맞받아나가며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혁명노선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 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 붉은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스런 승리의 연륜을 아로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 건설노선을 구현하여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건설되었으며 인민 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예술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 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 천만 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 전투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70일전투기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 운수 부문에서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여 급격한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우리식의 현대화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적 양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상반기도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 제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주요 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올해 장엄한 서곡을 울린 국방과학 부문에서는 연이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7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긍지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뜻 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며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땀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고 낫과 붓을 역세계 틀어잡고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당 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민족 민주선전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남조선 인민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당과 인민이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됩니다.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 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입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대표자 전원이 참가했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꾼대표 1,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서 여성은 315명입니다. 대회에는 1,487명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속에 자기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당과 혁명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 <北당대회> 김정은 양복차림 눈길...직책·대외정책 바뀌나(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6일 개막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평소 인민복 차림과 달리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나타나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쏠림.
- 김 제1위원장이 양복 차림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짐. 김 제1위원장은 이날 짙은 남색 바탕에 세로로 줄무늬가 난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매고 당 대회 개최 장소인 평양 4·25문화회관에 나타남.
- 김 제1위원장이 이번 당 대회에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것은 그의 새로운 직위 추대를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옴.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5. 5.

■ 北 당대회 D-1...김여정 장관급 자리 오르나(연합뉴스)

-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열게 될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급부상하는 무대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림.
- 김여정의 현재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임. 그가 일하는 구체적인 기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보 당국은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우리의 차관급)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김여정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부장(장관급)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옴. 한편, 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별도의 직책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2016. 5. 6.

■ 반기문, 北리수용과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못했다(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5일(현지시간) 지난달 뉴욕 유엔본부에서 있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의 조우에 대해 “워낙 시간이 짧아 실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할 수 없었다”고 말함.
- 반 총장은 “(리 외무상이) 참석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면서 “북한이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적인 어젠다(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체는 평가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함.
- “북한이 이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애) 나왔으면 좋겠다”고 촉구함.

2016. 5. 7.

■ <北당대회> 집행부에 제재 대상자 대거 포함(연합뉴스)

- 북한이 6일 공개한 노동당 제7차 대회의 집행부 명단에는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연합뉴스가 7일 지난해 12월 김양건 노동당비서의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70명(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포함)과 당 대회 주석단에 배치된 39명의 명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남.
- 이번 집행부의 명단에는 리명수 군 총참모장이 숙청된 리영길을 대신해 서열 명단 9위에 올랐고, 사망한 김양건 후임으로 발탁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겸 당 대남담당비서는 17위를 차지함.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은 21위, 리수용 외무상은 22위,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이 서열 29위로 새로 배치됨.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6위에서 5위로, 김기남 선전담당 비서는 5위에서 6위로 서로 자리

- 를 바꿈. 최근 건강이상설이 나돌았던 강석주 당 국제담당비서와 임철웅 내각 부총리는 이번 명단에서 사라짐.
- 당 대회 주석단 구성은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당과 국가의 주요 간부들이, 왼쪽에는 군 간부들이 각각 배치됨.

다. 공식행사

2016. 5. 3.

■ 北 노동당 7차 대회 참가자들 평양 집결(연합뉴스)

- 오는 6일 개막하는 북한 노동당 7차 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에 집결했다고 북한의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이 3일 보도함.
- 방송은 “대회 참가자들이 2일 평양에 도착했다”며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구호관이 세워져있는 (평양의) 역 구내는 축하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고 전함.
- 당 무력기관 일꾼들이 현장에서 대회 참가자들을 맞이했다고 방송은 설명함. 이 방송은 참가자의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3천여 명의 대표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6. 5. 6.

■ <北당대회> 주요 외국 손님 없이 치르는 ‘나홀로 행사’(연합뉴스)

-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 위해 열리는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주요 외빈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나 홀로 행사로 치러지는 것으로 6일 알려짐.
- 3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회사와 함께 이날 오전 평양 소재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재까지 의미 있는 외빈이 7차 당 대회에 참석한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재일본조선인 축하단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축하단 등 민간 쪽에서 참석한 것 이외 국가나 당을 대표하는 외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3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노동당 대회에 주요 외빈이 참석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 <北당대회> ‘김정은 동지의 당’ 언급한 서사시…우상화 절정(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대회 개막일인 6일 이례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 특별방송을 내보내며 당대회 분위기를 띄움.

- 특히 중앙TV는 “김정은 동지의 당”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서사시를 소개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이상화에 주력함.
- 중앙TV는 이날 오전 8시30분(이하 우리 시간) 붉은색 바탕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父子)의 초상화(태양상)를 잇달아 내보내며 방송 시작을 알림.

■ <北당대회> 참가자에 42인치 평면TV 선물 소문(연합뉴스)

- 북한이 36년 만에 열린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아 참가자에게 평면TV를 선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RFA는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당대회에서 전체 참가자들에게 적어도 42인치 이상 평면TV가 선물로 공급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전함.

■ <北당대회> 日언론 “김정은, 핵·미사일 실적으로 제시한 듯”(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 첫날인 6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함.
- 교도통신은 “공식 발표는 없다”고 전제한 뒤 “김 제1위원장이 당 활동의 총괄보고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성과를 실적으로서 전면에서 제시한 모양”이라고 전함. NHK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업적으로 과시할 전망”이라고 보도함.
- 요미우리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은 장기 집권을 위한 체제 기반의 확립을 내외에 과시하고, 핵 보유를 다시 선언할 전망”이라고 내다봄.

2016. 5. 7.

■ 北 당대회 2일차... '1박2일' 김정은 사업총화 보고 지속(연합뉴스)

- 김정은 시대가 선포되는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가 7일 개막 이틀째를 맞았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전날에 이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하시었다”며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2일(차) 회의에서 계속된다”고 전날 밤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7일 자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하시었다”고만 보도했을 뿐 사업총화 보고 내용은 전하지 않음.

■ <北당대회> 日언론, 北 고립 부각...김정은, 김일성 의식한 듯(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7일 전날 개막한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에 대해 “북한의 고립만 부각됐다”, “우상화만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함.
-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100명 이상의 외국 언론을 초대하는 것은 핵개발 진전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1980년 당 대회와 달리 주요국 정부 대표단의 참가는 확인되지 않아, 국제적 고립이 부각됐다”고 지적함.
- 아사히신문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당 대회에서 우상화와 개인독재 강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그가 내거는 말과 현실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함.
- 산케이신문은 “이번 당 대회의 포인트는 2개”라며 “하나는 당보다 군을 우선했던 부친과 달리 당을 중시해 36년 만에 당대회를 열었다는 점”이라고 함. 이어 “또 하나는 경제 문제를 뒤로 돌린 부친과 달리 핵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하는 병진노선을 지향한다는 것”이라면서 “2가지 모두 독자노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통치 스타일과 겹친다”고 지적함.
- 도쿄신문도 “김 위원장이 36년 만에 당대회를 연 것은 당 중시의 통치 스타일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과거 6차 당대회는 김일성 주석 시대에 열린 만큼 주민들의 신망이 높은 할아버지를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5. 1.

■ 北, 당대회 앞두고 만수대의사당에 김일성 부자 조각상 설치(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우리의 국회의사당 격인 만수대의사당에 김일성·김정일 조각상을 설치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함.
- 방송은 “만수대의사당에 모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색 조각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의식이 4월30일 진행됐다”고 보도함.
- 이날 행사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양형섭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와 김용진·김덕훈 부총리 등이 참석함.

■ 北, 당대회 앞두고 대형 발전소 잇달아 준공(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6일 개막하는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대형 발전소 공사를 잇달아 마무리하고 있음.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강원도에 대규모 수력발전소인 원산군민발전소가 훌륭히 완공되었다”며 “준공식이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오수용 당 비서, 박정남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 한상준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함.
- 북한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당대회를 앞두고 각종 공사에 주민들의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속도전인 '70일 전투'를 벌여오고 있음.

2016. 5. 2.

■ 北 '70일 전투' 오늘 종료... '당대회 모드'로 전환(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6일 개막하는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앞서 사업분야의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속도전인 '70일 전투'가 2일 종료된다. 70일 전투가 종료되면 북한은 본격적인 7차 노동당 대회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 재미(在美) 친북매체인 민족통신은 1일 자사 노길남 대표가 나선지역을 방문했던 사실을 전하면서 "70일 전투가 끝나는 5월 2일까지 완공하려고 여기저기서 공사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고 보도함.
- 북한이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한 70일 전투의 종료 시점이 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된 셈임.

2016. 5. 3.

■ 北, 최전방에 특별경계태세 발령... 당대회 전후 도발하나(연합뉴스)

- 북한이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해 노동당 7차 대회를 전후로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최근 전선 지역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노동당 대회(6일)를 전후로 도발을 감행하려는 징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통상적으로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하달하지만, 이번에는 연합훈련 이후에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태세 명령을 내려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北, 당대회 앞두고 끝내지 않은 공사도 준공식(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주요 공사에 대해 마무리를 하지 않은 채로 준공식부터 치르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연일 보도된 주요 건설의 준공 소식은 대부분 거짓"이라며 "지난 4월 23일 (북한이) 완공했다고 보도한 '백두산청년3호발전소' 건설도 언제(담) 공사만 완공했을 뿐 전기를 생산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공정이 필요하다"고 말함.

-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어랑천 계단식 발전소는 당 대회전으로 끝낸다고 했지만 자재 부족으로 현재 3호 발전소 언제만 완공했고, 나머지 4~6호 발전소는 아직 건설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며 “원산 주민발전소의 경우 3만kW(킬로와트)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 온 나라에 경사가 난 듯이 떠들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북한이) 연일 반쪽짜리 준공식 노름을 벌이며 외부세계에 자랑과 선전을 하고 있지만 7차 당 대회가 끝나면 마구잡이로 벌여놓은 건설이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北, 당대회 기념해 모든 가정에 전자제품 제공설(데일리NK)

-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를 맞아 모든 가구에 전자제품을 포함한 각종 선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6일 개최되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주민들과 학생들을 총동원해 각종 선물, 상품 공급 등 여론전을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섰다”면서 “가구별 배려공급이 그 어느 때보다 푸짐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함.
-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제품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럴 줄 알았다’는 냉소적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공급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동안 왜 안 줬냐’는 반감이 생겨 북한 정권에 자충수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이 매체는 전함.

2016. 5. 4.

■북한, 당대회에 외국기자 100명 이상 받아들여(연합뉴스)

-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 대회(6일)를 취재토록 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외국 취재진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됨.
- NHK는 4일 “북한은 당 대회에 맞춰 일본, 구미 등지에서 100명 넘는 취재진을 받아들였다”며 “핵·미사일 개발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김 제1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체제가 명실공히 확립됐다는 점을 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보도함.

2016. 5. 5.

■北, 지정된 장소서 당대회 방영 TV 시청하라(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전체 당원과 근로자에게 지정된 장소에 모여 노동당 제7차 대회 개막식을 방영하는 TV를 시청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알려짐.
- 한 대북 소식통은 5일 “북한 당국이 전체 당원과 근로자에게 조선중앙텔레비전으

로 방영되는 당 대회 개막식 시청을 위해 6일 오전 8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힘.

- 당원과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기업소(공장)의 회의실, 전업주부는 동사무소 회의실이나 지정된 공공장소에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2016. 5. 6.

■ <北당대회> 김정은, 당대회 맞아 학생에 사탕·과자 선물(연합뉴스)

-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맞아 학생들에게 사탕과 과자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짐.
- 봉황위성TV는 전날 외신에 취재가 허가된 평양 만수대 소년궁에서 만난 많은 학생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대회 선물을 줬다고 말했다고 6일 보도함.
- 봉황위성TV는 만수대 소년궁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대부분 학생이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됐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로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전함.

■ <北당대회> 외신, 농락당했다…대회장 외관만 찍고 오후엔 공장견학(연합뉴스)

- 북한이 6일 열린 제7차 노동당 대회 회의장에 외신기자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현장 취재에 나선 외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함. 북측은 2012년 4월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할 당시에도 초청된 외신기자들에게 로켓 발사 현장을 보여주지 않음.
- 일본과 중국, 서방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7차 당대회 소식을 바깥 세계에 전하기 위해 북측은 120~130명의 외신기자를 초청함. 하지만 이들은 당대회 장소인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접근하지 못함.
- 북한 당국은 외신 기자들을 4·25문화회관 근처까지 안내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채 약 200m 거리에서 대회장 외관 등을 촬영하게 했지만, 대회장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건물에 접근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2016. 5. 7.

■ 北, 당대회 장면 이틀째 녹화방송…김정은 육성 포함안돼(연합뉴스)

- 한 조선중앙TV는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노동당 제7차 대회 이틀째 행사를 녹화 방송함.
- 중앙TV는 이날 오후 10시35분께(평양시간 오후 10시5분께)부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분석) 보고하고 김기남 당 비서 등이 토론하는 모습 등을 요약해 28분간 내보냄.
- 그러나 중앙TV는 당대회 개최사를 하는 김 제1위원장의 육성을 내보낸 전날과 달리 육성을 내보내지 않고 아나운서가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도함. 김 제1

위원장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도 보도하지 않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5. 1.

■ 北, 노동절 맞아 김정은에 충성·경제성과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1일 '5·1절'(노동절)을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각 산업 분야에서의 성과를 독려함.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5·1절 126돌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일 김정숙평양 제사공장에서 진행됐다”면서 행사에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노동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1면 사설에서 “전체 노동계급과 농업 근로자, 지식인들은 일편단심 원수님(김 제1국방위원장)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지니고 원수님의 사상과 권위, 업적을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밝힘.

2016. 5. 3.

■ 北 “70일 전투,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 열어”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진행한 ‘70일 전투’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었다”고 주장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일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긴 승리의 개가’라는 글에서 “노동 계급이 70일 전투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등 각 분야에서 “생산 목표를 연이어 돌파”하고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 기간 산업 생산은 물론,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며 “온갖 적대 세력들의 제재와 전쟁 책동을 쳐갈기며 당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쳐왔다”고 평가함.

2016. 5. 4.

■ 北, 7차 당대회 D-2...분위기 띄우기 본격화(연합뉴스)

- 북한은 4일 제7차 노동당 대회의 개막을 이틀 앞두고 관영 매체를 동원해 본격적인 분위기 띄우기에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대회에 즈음해 각국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왔다는 소식을 이 날자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함.
-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란이슬람교연합당, 네팔 노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방글라데시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김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최태복 당 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곽범기·오수용·김평해·김영철 당 비서 등 당·정·군 고위인사들은 참가자들의 숙소를 찾아 이들의 평양 입성을 환영함.

■ 北 당대회 D-2...“김정은 21세기 태양” 집권 5년 치적 선전(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북한 관영 매체가 김정은 정권의 5년 치적을 선전하고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1만7천700여 자가 넘는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제목의 정론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칭하며 집권 5년간의 ‘성과’를 선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의 목표가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가 세운 ‘사회주의 강성국가’ 위에 ‘천하제일강국의 큰 집’을 짓는 것이라며, 그 결과물로 평양의 여명거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70일 전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성공’ 등을 거론함.

2016. 5. 5.

■ 北 당대회 D-1...노동신문, 뜻깊은 날 박두(연합뉴스)

-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나라가 ‘걱정과 환희’로 가득 하다며 분위기를 띄웠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6호 선반을 마음속에 소중히 안고 살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게 될 뜻깊은 날이 박두하였다”며 “우리 인민의 정신상태는 비할 바 없이 높아져 참된 애국자, 참된 인간들의 대열이 늘어나고 있다”고 자찬함.
- 신문은 조국광복회 기념일을 축하하는 다른 기사에서는 “당 7차 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조국이 얼마나 크나큰 걱정과 환희로 들끓고 있는가”라며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변)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라고 주장함.

2016. 5. 6.

■ <北당대회> 조선중앙통신, 소형 핵탄두 개발은 당대회 선물(연합뉴스)

- 북한은 7차 노동당 대회 개막일인 6일 “소형 핵탄두 개발은 당대회에 드리는 선물”이라며 속도전인 70일 전투의 성과를 자랑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만여 자 분량의 보도를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마련된 우리식의 소형핵탄두개발과 탄도로켓 전투부침두(탄두)의 대기권 재돌입(재진입) 환경모의시험, 대(고)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신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의 대성공 등은 자강력의 강자들인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밝힘.
- 그러면서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발사의 장쾌한 퇴성으로 자주의 핵강국,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데 이어 역사적인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 노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대정지축전으로 빛내이며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 <北당대회> 중앙TV, 2차례 보도서 대회 언급안해(연합뉴스)

- 북한의 조선중앙TV가 6일 오후 2차례 보도에서 이날 개막한 제7차 노동당 대회 소식을 전하지 않음.
- 중앙TV는 이날 오전 8시 30분(평양시간 8시) 내보낸 방송순서를 통해 오후 5시 30분과 오후 8시 30분 두 차례 보도 프로그램을 예고함.
- 이에 따라 이들 보도에서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당 대회 소식을 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두 차례의 보도 모두 대회 소식을 다루지 않음.

■ <北당대회> 평양시내 공장에 이미 '김정은 시대' 표어 등장(연합뉴스)

- 북한이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열고 '김정은 시대'를 선포할 예정인 가운데 평양시내 일부 국영공장에는 이미 관련 표어가 내걸리기 시작했다고 홍콩 봉황위성TV가 평양발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날 북한 당국의 안내로 외신기자들이 찾은 '평양 326 전선공장'에는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음.
- 북한이 외신기자들을 공장으로 안내한 것에는 자신들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목적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옴.

2016. 5. 7.

■ <北당대회> 中 언론, 당대회 개막 사실위주 보도(연합뉴스)

- 중국 언론은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대회 개막 소식을 사실 위주로 간략하게 전함.
- 신화통신은 7일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대회가 6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면서 북한의 노동당은 1945년 10월 10일 성립 이래 지금까지 6차례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했으며 마지막 6차 대회는 1980년에 개최돼 이번이 36년 만이라고 소개함.
- 홍콩 봉황망은 조선중앙TV가 늦은 시간 당대회 화면을 방송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짙은 색 양복에 옅은 색 넥타이를 매고 보고를 했다고 전함.

■ <北당대회> 北매체, 당대회 개최소식 대대적 보도(연합뉴스)

-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리자 북한 매체는 행사 개최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함.
-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7일, 전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대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평소보다 2개 면을 증면한 8개 면을 발행함.
- 신문은 1면부터 7면까지 당대회 개막 기사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회사, 조선총련이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축하문, 당이 인민군과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시리아 대통령의 축전 등으로 도배함. 또 개회사를 하는 김 제1위원장과 4·25문화회관을 가득 채운 참가자의 모습 등 사진 26장도 함께 실으며 당 대회 분위기를 띄움.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5. 3.

■ 유엔제재 2개월...북중접경 中여행사들, 北관광상품 폐기했다(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접경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해온 중국 여행사 대부분이 북한 관광상품을 폐기한 것으로 확인됨.
- 3일 북중접경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동북3성(랴오닝·지린·헤이룽장성) 지역에서 북한 신의주 일대 하루짜리 방문 상품을 비롯해 3박4일 일정의 평양~개성~묘향산~관문점 북측지역 순례 상품 등을 판매해온 여행사 45곳이 최근 북한관광상품 판매를 중지함.
- 여행사들이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중지한 배경에는 당국의 업무정지 통보 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만 2개월째 시행되면서 북한 명승지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짐.

■ 단둥서 北과 거래하던 中 기업들 상당수 철수(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단둥(丹東) 시내에서 북한과 거래하던 중국의 중소 무역회사의 상당수가 대북 제재 여파로 사무실 문을 닫고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단둥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과 거래하던 중소 무역회사들이 입주해 있던 (단둥의) 30층짜리 쌍둥이 빌딩에 요즘 들어 빈 사무실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무역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 빌딩에 입주해 있던 (중국) 무역관계자들이 철수했기 때문”이라고 전함.
- 소식통은 “(이들 사무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지난 5년 동안 입주해 있던 임차인이 최근 (대북제재로) 계약 연장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바람에 대책 없이 비워두고 있다”고 밝힘.

2016. 5. 4.

■ 北 고려항공, 방콕 노선 운항 중단한 듯(미국의소리)

- 북한 고려항공이 주 1회 운항하던 태국 방콕 노선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4일 보도함.
- VOA는 “방콕 쉐완나폼 공항의 웹사이트에 현지 시각으로 4일 (방콕에) 도착 예정인 북한 고려항공 편이 ‘결항’됐다고 표기했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조만간 고려항공의 방콕 운항 취소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북한이 먼저 운항 중단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 **北, 쿠웨이트에 식당 열려다 포기(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쿠웨이트에 식당을 열려다 주류 판매와 공연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현지 법 때문에 사업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RFA는 쿠웨이트 한인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말 쿠웨이트 중심가인 핀타스 지역에 식당을 열려고 직원들을 파견했지만 현지 사정으로 개업을 포기했다고 전함.
- 한인회 관계자는 “식당 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북한 대사관의 숙소에서 두문불출하며 외출을 삼가고 있다”고 덧붙임.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5. 4.

■ **북한 당국, 해외근로자 일부에 철수 명령(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관련기관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돌아온다는 통보를 받고 가족들이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면서 “해외에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해외 근로자 선발을 위해 고리대금까지 써가며 (관리들에게) 뇌물을 섬겼는데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황당해 한다”고 전함.
- 그러면서 “러시아와 쿠웨이트, 앙골라에 파견된 해외근로자들 일부가 철수 명령을 받은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로 해당 국가들이 북한 당국에 (노동자들의) 철수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이어 소식통은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현지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내몰리면서도 약정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면 뇌물로 투자한 빚까지 떠안게 돼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덧붙임.

2016. 5. 5.

■ **北, 南 일부 언론기관 홈페이지 접속 차단(자유아시아방송)**

- 북한북한 당국이 우리나라 일부 언론사의 접속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다른 미국 매체를 인용해 보도함.
- 오는 6일 개막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취재차 평양에 도착한 미국 로스앤젤

- 레스타임스의 줄리 매किन 기자는 지난 3일 평양 순안공항 환전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체신성의 공지문을 발견해 사진으로 공개함.
- 공지문은 한국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를 ‘괴뢰언론기관’으로 나열하는 한편 RFA와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반공화국 모략선전 홈페이지’라고 규정하면서 접속을 금지한다고 밝힘.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5. 1.

■ ‘北-中 국경루트’ 북한산 필로폰 수 만 명분 국내 밀반입 유통돼(연합뉴스)

- 북한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투약하거나 판매한 탈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필로폰은 최소 3만 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확인됨.
- 필로폰 공급처는 주로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조선족이었고 북한 주민이 직접 가담한 정황도 나옴. 실제 북한산 필로폰의 다량 유입 가능성이 확인된 셈임.
- 검찰 관계자는 “일부 탈북자는 필로폰 밀거래·투약이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등 준법의식에 문제를 드러냈다”며 “마약범죄의 중독·위험성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2016. 5. 4.

■ 北 주민들, 당대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을 준비하면서 ‘70일 전투’로 노력동원을 강화하는데 대해 북한 주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일본 매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RFA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이 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 군사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

대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공통적인 느낌인 것 같다”고 전함.

- 이시마루 대표에 따르면 지난 24일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이 대성공했다는 북한측의 보도에 대해 북한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여기는 전기도 없으니 보도를 못 본다”며 “국방력을 강화한답시고 계속 그런 데만 돈을 처넣고, 앞으로 잘 산다고 거짓말만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실험하든 어찌하든 믿지도 않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말함.

■ BBC “김일성대생들, 영어는 수준급이지만 인터넷 앞에선 찢찢”(연합뉴스)

- “김일성대학생들이 영어 실력은 놀라웠지만 인터넷은 쓸 줄 몰라 찢찢 뻘뻘했다.” 지난달 말 노벨상 수상자 3명과 동행에 방북한 영국 BBC 방송의 루퍼트 윙필드-하예스 기자는 4일(현지시간) 평양 김일성대학을 둘러본 풍경을 이렇게 전함.
- 영국인 출신의 노벨의학상 수상자 리처드 로버츠 경이 학생들과 미생물학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학생들의 영어실력과 미생물학에 대한 지식은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전함. 하지만 안내를 따라 간 규모가 큰 컴퓨터실에선 다른 모습을 목격함.
- 컴퓨터 앞에 앉은 학생들을 본 로버츠 경이 학생들이 인터넷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는데, 한 학생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자 감독관이 다가와서 알려줌. 로버츠 경은 학생이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느냐고 감독관에게 묻자 감독관은 대답을 못해 불편해했다고 기자는 전함.

2016. 5. 5.

■ 北 매체, 금연운동 덕분에 흡연율 뚜렷이 감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국가적인 '금연 운동'의 효과로 최근 흡연율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보건성 책임부원의 언급을 인용해 "2013년 남성흡연율이 4년 전에 비해 8% 이상 감소됐다"고 보도함. 그러면서 “조선(북한)에는 여성 흡연자는 없다”고 덧붙임.
- 중앙통신은 이어 “(우리) 나라에서는 잎담배 재배 면적을 극력 제한하는 한편 국가 승인을 받은 단위에서만 담배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며 “담배곽에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과 니코틴·타르 함량을 표기하며 미성년에게는 담배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함.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5. 3.

■ NYT, 김정은 코너로 모는 것 위험…새 평화제의를 美 검토해야(연합뉴스)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면, 북한이 미국에 ‘평화제의’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과의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미국 정부는 재빠르고 창의적으로 그런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신문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뻔뻔한 핵 동향’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유엔의 고강도 제재가 적용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 활동은 올해 오히려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함.
- NYT는 “김정은과 같이 경험이 없고 난폭한 지도자를 코너로 모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핵무기를 한국이나 일본으로 겨냥하는 등 더욱 위험한 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제재만으로는 이런 위협을 완화하는데 불충분하다”고 밝힘.

2016. 5. 4.

■ 北, 북미 사이 생사 판가름 위한 물리적 결산만 남아(연합뉴스)

- 북한은 4일 “지금 조미(북미) 사이에는 생사 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 남아 있다”며 미국을 위협함.
- 북한 인민군 관문점대표부는 이날 6천600여자 분량의 비망록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오직 섬멸의 선군총대로 철천지 원수 미제를 무자비하게 다스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비망록은 고발장, 호소문, 논평, 상보 등과 함께 북한 기관들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힐 때 취하는 형식 가운데 하나임.

■ 토콜라 KEI 부소장 “북, 당대회에서 핵보유국 선언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6일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 보유국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이 3일(현지시간) 전망함.
- 토콜라 부소장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대회를 계기로 삼아 “영구적인 핵무기 보유국 선언”을 시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을 김일성이나 김정일과 동일 선상에 놓는, 김정은에게 있어 일종의 개인적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토크라 부소장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대회 때 노동당 중앙위원회나 국방위원회의 주요 직책에 새로운 사람을 선임했다고 발표하거나, 북한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정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

■ 힐러리 외교책사 웬디 셔먼, 北 쿠데타 상황 상정해야(연합뉴스)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책사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3일(현지시간) “북한이 내부붕괴 또는 쿠데타 상황을 맞을 가능성을 상정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이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셔먼 전 차관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CSIS-중앙일보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오찬 연설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급변사태와 쿠데타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셔먼 전 차관은 “특히 중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의 린치핀(핵심축)”이라며 “한·미·중은 공동의 전략을 개발해 북핵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함. 또 한국과 일본 내에서 독자적 핵무장 논의가 제기되는데 대해 “상당히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비판함.

■ 러셀 “북핵 불용…北개담게 하려고 제재” 韓학자들 핵무장 공방(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일(현지시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함.
- 러셀 차관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 공동 주최로 열린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확고한 대북 정책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날 행사에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 안호영 주미대사 등 양국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함.

2016. 5. 7.

■ 美 “北, 황무지와 고립에서 벗어나라”…도발 자제 촉구(연합뉴스)

- 미국은 6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성공을 주장한데 대해 “북한은 황무지에서 벗어나고 고립에서 탈출하라”며 냉담하게 반응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를 운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고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에게는 황무지에서 나오고 고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밝힘.

- 어니스트 대변인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이 지켜야할) 국제적 의무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미국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한국, 일본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국제사회 역시 북한에 책임을 묻는데 진지하다”고 강조함.

나. 북·중 관계

2016. 5. 2.

■ 中, 北당대회에 대표단 아예 안보낼 듯··北, 초청도 안해(연합뉴스)

- 중국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북한 노동당 대회에 대표단을 아예 파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베이징(北京)의 한 대북소식통은 2일 “바로 2~3일 전에도 (중국정부의 대표단 파견) 동향을 살펴봤지만, (그런 동향은) 없었다”고 말함. 또 “전반적으로 (북한의) 외부초청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중국도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임.
- 중국이 본국 차원에서의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경우, 리진권(李進軍) 주북한 중국 대사 등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됨.

2016. 5. 3.

■ 中 외교부, 北당대회 대표단 파견 여부에 “정보없다”(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가 오는 6일 개최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자국 대표단의 파견 여부와 관련해 “정보가 없다”는 반응을 보임.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의 노동당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지를 묻는 말에 “현재 이 분야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함.
- 베이징 소식통들은 이와 관련, “북한이 제7차 당대회에 중국의 당·정 인사를 포함해 해외인사들을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2016. 5. 4.

■ 中 정치평론가, 김정은 정권 10~15년 내 붕괴할 것(연합뉴스)

- 중국의 유명 정치평론가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10년에서 길어야 15년 내에는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중시하며 북한의 급변사태 논의를 금기시해 온 중국에서 이같은 전문가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
- 4일 중국 싸우후(搜狐)망에 따르면 중국 기관지 학습시보(學習時報) 부편집장 출신

의 정치평론가 덩위원(鄧聿文)은 최근 군사사이트 테취(鐵血)군사망에 올린 기고문에서 “만약 평양(북한)이 유엔의 제재 하에서 타협하지 않고 해결 방식을 찾는다면 조선(북한)의 붕괴 가능성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역사는 김정인에게 시간을 많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덩위원은 “이 같은 몇 가지 붕괴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만 발생하더라도 위기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평양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재난이 돼 연쇄적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따라서 북한의 붕괴는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 될 것”이라는 말로 글을 맺음.

2016. 5. 5.

■ <北당대회> 중국, 북한의 개혁개방 메시지 여부에 주목(연합뉴스)

- 중국이 36년 만에 개최되는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상당한 관심을 드러내는 가운데 특히 개혁개방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지에 주목하고 있음.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6일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의 관전 포인트를 정리한 기사에서 6일 개최되는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를 드러낼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북한이 보다 더 유연한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세계의 모든 경제주체는 이런 변화를 지지할 것”이라며 중국이 개혁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함.

2016. 5. 6.

■ 中, 당대회 북한에 “국제사회 호소 들으라” 촉구(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6일 36년 만에 노동당대회를 개최한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느냐”는 질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 국가발전에서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 있다”며 “우리는 조선이 능히 국가발전과 인민행복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이어 “우리는 또한 조선이 능히 국제사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동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北당대회> 北 대회前 5차 핵실험 자제...中 의식했나(연합뉴스)

- 북한이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 개막일까지 5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아 추가 도발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당초 정부 당국은 북한이 당 대회를 앞두고 핵 무력을 과시하고자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옴. 그러나 북한은 당대회가 개막일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특이한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이 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물밑 외교채널 가동 등을 통해 설득 노력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도 (5차 핵실험 억제에) 많이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만류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말함.

2016. 5. 7.

■ <北당대회> 中공산당, 중조관계 고도로 중시…축전발송(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관계가 소원해진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북·중 관계의 발전을 기원하는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6일 발송한 축전을 통해 “중국 당과 정부는 중조(중북)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조선 측과 함께 노력하여 중조 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 공산당은 북한 노동당 제7차대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북한 노동당이 끊임 없이 발전하며 중조 친선이 대를 이어 전해지기를 축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중국 정부는 이번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대표단을 별도로 파견하지 않았음.

■ <北당대회> 中당국, 축전서 김정은 언급 안해(연합뉴스)

- 중국 당국이 북한 노동당에 보낸 축전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가 개막한 전날 저녁 북한 노동당에 보낸 축전에 김정은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봉황위성TV가 7일 보도함.
- 중국 당국이 축전에서 사실상 북한 노동당 수장인 김정은 제1비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중국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김정은 정권이 연초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눈길을 끄.

다. 북·일 관계

2016. 5. 1.

■ 조선총련 北 당대회 대표단 평양 도착(연합뉴스)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오는 6일 개막하는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부영옥 총련 오사카부 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제7차 대회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4월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함.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3월 허종만 의장을 비롯한 조선총련 간부와 과학자 등 22명에 대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본 재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함.

2016. 5. 2.

■ 日, 핵두뇌 北유출 차단…교토대 교수에 北재입국 금지(연합뉴스)

- 일본 교토(京都)대 원자로실험소 소속 남성 준교수(부교수급)가 일본 정부에 의해 방북 후 재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고 산케이신문이 2일 전함.
- 이는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제재 조치의 하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등에 취한 것과 같은 조치임.
- 일본 공안 당국은 교토대의 조선인 과학자 인맥이 대량과괴무기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북한의 과학기술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2016. 5. 6.

■ <北당대회> 일본 정부, 정보 분석·도발 경계 병행(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6일 시작한 북한의 제7차 당대회와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계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당대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의 움직임을 탐색할 중요한 기회”라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진행중임.
- 일본 총리 관저 소식통은 당 대회를 36년만에 개최한 사실 자체에 대해 “적어도 체제가 안정적이고 경제도 나쁘지 않다는 증거”라고 분석함. 이 같은 평가 아래 일본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이 내세울 정책과 당 간부 인사를 주시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함.

라. 북·러 관계

2016. 5. 6.

■ 러, 북한과의 금융거래 전면 동결...광물 수입도 중단(연합뉴스)

- 러시아가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전면 동결하고 북한산 광물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대통령은 “러시아 내에서 북한 은행 자회사·지사·대표부와 합작회사 등을 폐쇄하고 북한 은행 지분 매입과 은행과의 송금 거래를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3월 2일부터 90일 이내에 취할 것”을 지시함.
-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의무조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5. 1.

■ 안보리 성명, 러시아 변수로 채택 지연...北도발 입증 방증(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북한의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 논의가 나흘째 계속되고 있음.
- 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언론성명 초안에 대해 러시아 측이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음. 러시아 측은 뉴욕 현지시간으로 2일까지 언론성명 초안에 대한 이른바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언론성명 초안에는 기존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지적뿐 아니라 여전히 우려가 가시지 않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화학무기금지기구 총장, 비가입 북한 골칫거리...핵만 문제 아냐(연합뉴스)

-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가장 마지막까지 비회원국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의 가입 문제를 가장 큰 도전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한반도 안보에서 화학무기 문제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아흐메트 위집취 OPCW 사무총장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발효 19주년을 맞아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AP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이 협약을 조인하지 않은 북한 등 4개국을 합류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밝힘.
- 위집취 총장은 “비국가 세력으로부터의 화학무기와 관련한 안보 위협을 막으려

한다”며 “독성 물질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일은 계속 우리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함.

2016. 5. 3.

■ 北, 당대회 맞아 각국이 축전…中단체는 명단에 없어(연합뉴스)

-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해 각국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중앙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이란이슬람교연합당, 네팔노동자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몽골민족민주당 총비서, 방글라데시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김 제1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냄.
- 중앙통신은 하지만 ‘정계, 사회계, 경제계 고위인사들’이 축전을 보낸 20여개 국가를 나열하면서 중국을 포함했을 뿐, 공산당을 비롯한 중국의 별도 단체나 단체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2016. 5. 5.

■ 북한 대사관, 파키스탄서 면세주류 초과 반입하다 걸려(연합뉴스)

- 파키스탄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이 외교관에게 허용된 면세주류 한도를 초과해서 술을 반입하다 파키스탄 세관에 적발됨.
- 5일 현지 소식통과 파키스탄 통관·무역 전문매체 커스텀뉴스에 따르면 남부 경제 중심지 카라치의 동부 세관은 지난달 29일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에서 파키스탄 주재 북한대사관 앞으로 온 외교화물의 통관을 보류함.
- 세관 당국은 북한대사관이 브로커를 통해 호텔 등에 불법적으로 판매하고자 주류를 대량 반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실제로 북한대사관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슬람국가 파키스탄에서 여러 차례 주류 불법판매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 북한 외교관들은 대사관 운영비와 월급 등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데다 최근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하면서 주류판매가 금지된 이슬람권에서 주류 불법 판매를 통한 외화벌이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짐.

■ 방북 노벨상 수상자 3명, 김일성대 강연 등 일정 마무리(연합뉴스)

- 김일성종합대학 등에서 강연하기 위해 지난달 말 방북길에 오른 노벨상 수상자 3명이 북한에서 공식일정을 마무리함.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창립 70돌에 즈음하여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와 국제평화기금이 공동주최하는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국제학술교류’ 행사가 2일부터 5일

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행사기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해당 대학의 교원, 학생들과 국제평화기금대표단 성원들 사이의 좌담 및 학술교류가 있었다”고 전함.

2016. 5. 6.

■ 몰타 언론, 몰타서 현금 반출하려던 북한 여성 적발(연합뉴스)

- 지중해의 섬 나라 몰타에서 현금 1만 유로(약 1천300만원)를 반출하려던 북한 여성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짐.
- 6일 몰타 주간지 일 무멘트(Il Mument)는 최근 북한 여성 노동자 1명이 현금 1만 유로를 신고 없이 반출하려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함. 몰타는 1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반출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몰타 당국은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 제재로 북한에 송금할 길이 막히자 허가 범위를 초과한 현금 반출을 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하며 이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2016. 5. 7.

■ <北당대회> 외신 핵-경제 병진노선 주목...제재로 실패할 것(연합뉴스)

-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7차 대회 이틀째인 7일 주요 외신들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 주목하면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움.
- 외신들은 제한된 취재 여건 탓에 조선중앙TV가 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개회사 내용을 분석하며 당대회 소식을 전함.
- AP통신은 평양발 보도에서 “김정은의 수소탄 실험 언급은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설명함.
-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체제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입증한 개회사라고 설명함.
- 영국 BBC방송은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치와 경제적 변화가 면밀히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함.
- AFP통신도 노동당 대회를 김정은의 대관식에 비유하며 “콘클라베(비밀회의)에서 공식적인 당의 교리인 김정은의 병진정책을 떠받들 것”이라고 강조함.
- 다만 김정은의 병진 노선은 국제 사회의 제재 등으로 핵과 경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음.

■ **노벨상 방북 대표단, 과학·기술 교류가 北체제 변혁 시작(연합뉴스)**

- “(북한의) 레짐 체임지(체제 변혁)를 말한다면, 구소련과 중국 사례에서 보듯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과 기술입니다.”
- 북한 대학과의 과학기술 교류를 위해 노벨상 수상자 3명을 이끌고 최근 방북했던 국제평화재단(IPF) 자문이사회 위원장인 알프레드 리히텐슈타인 공화국 왕자는 7일 베이징(北京)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함.
- 알프레드 왕자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고조된 상황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방북이 정당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화”라며 이같이 강조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5. 1.

■ **北, 대성공 주장한 SLBM도 공중 폭발했다…2~3조각으로 깨져(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3일 시험발사에 대성공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북한명 북극성)도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발사된 SLBM이 공중에서 ‘단 분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북한군과 미사일 기술자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성공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기술 신뢰도가 연이은 실패로 추락하면서 외화벌이의 한 수단이었던 미사일 기술 수출도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무모한 도발보다는 민생을 살피야 할 때”라고 지적함.

2016. 5. 2.

■ **38노스, 북한 5차 핵실험 준비 징후 불확실(연합뉴스)**

- 북한이 6일 개최되는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앞서 5차 핵실험을 강행할지가 불확실하다고 북한 전문웹사이트인 ‘38노스’가 1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지난달 28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저장도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용한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이 같은 활동이 계속되는 보수작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끝나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 29일로 종료되고 미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핵실험

자체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2016. 5. 4.

■ 38노스, 북 지난달 SLBM실험 잠수함에서 직접 진행한듯(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달 23일 동해상에서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 발사실험을 했을 때 미사일이 발사대를 장착한 바지선이 아닌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게재된 위성사진 분석보고서에서 "수중 바지선이 통상적인 위치에서 북쪽으로 옮겨졌고, 이는 북한의 SLBM 개발이 수중 바지선이 필요 없는 단계까지 진전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함.
- 미사일 전문가인 미국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38노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SLBM이 작전 환경에서 신뢰성 있게 운용되는 방향으로 기술적 진전을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함.

2016. 5. 5.

■ 38노스, 북한 핵실험 강행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연합뉴스)

-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6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2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매우 낮은 수준의 저장도 활동만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이런 활동이 북한이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핵실험을 강행하는데 필요한 준비활동을 모두 마무리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보수유지 활동을 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함.

2016. 5. 7.

■ 38노스, 北 5차핵실험 준비중인 듯...조만간 강행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한국시간으로 6일 개막한 가운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준비 중인 듯한 움직임이 포착됨.
-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 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북한이 조만간 5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 보인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 38노스는 핵실험장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활동만이 관찰되고 있지만 핵실험장 남쪽 6km 남쪽에 위치한 통제센터로 보이는 곳에서 차량들이 포착됐다고 설명함.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 중인 징후로 볼 수 있다고 38노스는 해석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5.3	한민구, 사드 운용비 美 부담은 정해진 것 (연합뉴스)	
	5.4	한미, 북핵대응 '4D' 작전개념 구체화한다·9일 워싱턴서 회의(연합뉴스)	
	5.5		클래퍼 美국가정보국장 방한·北 핵실험 동향 등 논의(연합뉴스)
	5.7	NYT, 한 미 北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능 결론(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5.3		일본 우익, 미국에서 지속적 군위안부문제 왜곡시도(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5.1		중국군 최대 쌍동선 진수·남중국해 대잠 작전 투입할 듯(연합뉴스)
	5.3	오바마 WP 기고·TPP 비준 않으면 중국이 통상질서 주도(연합뉴스)	
	5.5		트럼프 진짜 되는 거 아냐? 중국도 긴장 속 촉각(연합뉴스)
			시진핑, 남중국해 2번 시찰했다..상황발생 시 발표 지시(연합뉴스)
5.6		시진핑, 미국 러시아에 협력강화 희망..‘톤에는 온도차(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1		日 집단지위권 행사 상정한 합동훈련은 선 거후에(연합뉴스)
			日여의의원들 트럼프 반대는 한미음..미 국가서 우려 표명(연합뉴스)
	5.3	백악관, 오바마 히로시마행 여전히 미장.. 사과가능성엔 “아니다”(연합뉴스)	
	5.5		기껏 집단지위권했는데..日 트럼프의 안 보무임승차론 경계(연합뉴스)
			아베, 美대통령 누가 되든 긴밀협력·동맹강화(연합뉴스)
5.7		美日中, 동남아국가 우군 만들기 외교잔.. 돈 보따리 경쟁(연합뉴스)	
5.7		日 각료, 트럼프 한일 핵무장론 美에도 이익 안돼(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5.1	마리 공군기 위험거리 근접 빈발..우발적 군사충돌 우려(연합뉴스)	
	5.2	나토군 사령관 “미국, 러시아 상대 정찰 강	

		화해야'(연합뉴스)	
	5.3	나토, 러시아 위협에 발트 지상군 창설 검토(연합뉴스)	러 안보리 대북 성명에 '한미 군사활동 자제' 추가 요구(연합뉴스)
	5.5	美 국무부 "러시아와, 시리아 알레포 휴전 합의"(연합뉴스)	
	5.7		러시아 "한국 배치 사드, 러 겨냥 않는다"는 법적보증 있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5.1	가까이히긴 멀고 착지면 괴로운 中日, 갈등 관리 모드로 가나(연합뉴스) 중국, 외교장관회담서 일본에 역사적시 등 4개항 요구(연합뉴스)	
	5.2		中 외교부장 對日 '4개항 요구'에 일본 정부 불쾌감(연합뉴스)
			日, 남중국해서 中과 갈등하는 필리핀에 훈연機 대여(연합뉴스)
			日방위상 방중 추진...안보법 설명·동중국해 논의(연합뉴스)
	5.3	中日, 베이징 고위급 접촉 끝나자마자 영유권 '신경전'(연합뉴스)	
	5.4		요미우리 "中, 여름 남중국해서 대규모 육해공합동훈련 가능성"(연합뉴스)
	5.6		방중 日대표단, 리위안차오 부주석과 관계 개선 노력 합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5.4	중국-러시아, 첫 미사일방어 시뮬레이션 훈련...사드 겨냥했나(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5.7	방러 이베, 푸틴과 회담...평화조약 체결 협상 등 별 진전 못봐(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5. 3.

■ 한민구, 사드 운용비 美 부담은 정해진 것(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한미 간 협의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계획에 대해 “사드의 전개와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말함.
- 한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드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분담 문제를 정했느냐”는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의 질의에 “사드는 현재 부지 문제 등을 검토 중이며, 우리는 부지와 시설 제공을 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한 장관은 협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기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지 못한다”면서 “한미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함.

2016. 5. 4.

■ 한미, 북핵대응 ‘4D 작전개념’ 구체화한다…9일 워싱턴서 회의(연합뉴스)

- 한미 양국이 오는 9일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지침인 ‘4D 작전개념’을 구체화함.
- 국방부는 4일 “한미 국방부는 이달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9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 이번 회의에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아태안보차관보, 에이브러햄 덴마크 동아시아부차관보, 일레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 여승배 외교부 북미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한미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임.

2016. 5. 5.

■ 클래퍼 美국가정보국장 방한…北 핵실험 동향 등 논의(연합뉴스)

-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안보 주요 당국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관계자는 5일 “클래퍼 국장이 어제 오전 비공개적으로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민구 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힘. “한 장관과 클래퍼 국장은 주로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안다”며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함.

- 클래퍼 국장은 한 장관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동향과 추가 핵실험 준비 동향을 포함한 도발 가능성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짐.

2016. 5. 7.

■ **NYT, 한·미 北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능 결론(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보도함.
- NYT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고위급 탈북자로부터 얻은 정보와 북한이 공개한 선전 사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자료 등을 종합해 양국이 이러한 평가를 했다고 설명함. 다만 한·미 양국 모두 이러한 평가를 공식화하는 것을 꺼려서 미국 정보 당국자는 다른 나라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만 발언했다고 NYT는 덧붙임.
- 오바마 정부에서 핵 문제를 다뤘던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은 "중국은 여전히 북한이 붕괴해 한국군, 미군과 국경을 접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한·일 관계

2016. 5. 3.

■ **일본 우익, 미국에서 지속적 군위안부문제 왜곡시도(연합뉴스)**

- 지난해 말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했지만 일제의 군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일본 우익들은 지속적으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런 시도의 주무대를 미국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미국 몬태나주립대의 야마구치 도모미 교수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본 우익들이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왜곡된 역사관을 관철시키는 자신들의 행위를 “역사전쟁” 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 온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

원은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보낸 성명에서 “그들(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한 역사를 아직 많은 일본인이 모른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문제(군위안부 문제)를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계속 활동하겠다”고 다짐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5. 1.

■ 중국군, 최대 쌍동선 진수…남중국해 대잠작전 투입할 듯(연합뉴스)

- 중국 인민해방군이 자국 최대의 쌍동선(雙胴船)을 진수시켜 남중국해상에서의 대잠(對潛)작전 임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루이리(瑞利)-10호’로 명명된 이 선박은 선체 두 개가 하나로 연결된 길이 82m, 폭 32m, 배수량 5천300t급의 쌍동선으로 중국군 내 쌍동선 중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함.
-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각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과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종 첨단 무기와 최신 선박을 잇따라 배치하는 등 영유권 강화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2016. 5. 3.

■ 오바마 WP 기고…TPP 비준 않으면 중국이 통상질서 주도(연합뉴스)

- 자유무역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류 속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론 기고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촉구함.
-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칙들도 바뀌고 있다”며 변화하는 규칙들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함.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규칙을 써내려갈 ‘펜’을 미국이 쥘 수 있게 하려면 TPP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2016. 5. 5.

■ **트럼프 진짜 되는 거 아냐? 중국도 긴장 속 촉각(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서 사실상의 본선진출을 확정 짓자 미국의 동맹국들에 이어 중국도 자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임.
-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본선행 확정 소식을 주요 기사로 전하며 실제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의 본선 승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에도 관심을 집중시킴.
- 중국 정부는 전날 트럼프를 향해 미·중 관계를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시진핑, 남중국해 2번 시찰했다…상황발생시 발포 지시(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초 취임 이래 지금까지 남중국해를 2차례 시찰하며 미국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 5일 홍콩 봉황망(鳳凰網) 블로그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안웨이핑(安衛平) 부참모장은 “시 주석이 집권 후 해군을 3차례, 남중국해를 2차례 시찰한 적이 있다”면서 “방어부대 전체가 '3급(4단계 중 2번째 수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도사와 선박 운항 방어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한편 돌발 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발포해 반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함.
-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은 시찰 당시 군복 차림으로 연합지휘센터를 방문해 실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태도도 표명했다고 안 부참모장은 덧붙임.
- 미국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과도하다며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해 항공모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동원한 순찰과 필리핀, 일본 등과의 군사 공조 강화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음.

2016. 5. 6.

■ **시진핑, 미국·러시아에 협력강화 희망…'톤'에는 온도차(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중국을 찾아온 미국과 러시아의 주요 인사를 잇달아 접견, 두 나라와의 관계 개선 및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함.
-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월트 디즈니의 최고경영자(CEO)인 로버트 아이거와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의장과 각각 개별적으로 면담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6일 전함.
-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국위원회 부회장을 겸하는 아이거와 면담에서 “미·중 관계

- 는 총체적으로 양호한 발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중 양국의 이익은 매우 깊이 융합돼 있으므로 협력해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다”고 말함.
- 시 주석은 이어 나리슈킨 의장과 만나서는 신밀월을 구가하는 중러 관계의 긴밀한 유대관계에 방점을 찍음. 우선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인사로 운을 뚫 뒤 “양국 간 전면적 전략 협력동반자 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민의 공동희망. 양국 발전 수요, 세계평화, 발전, 협력, 공영의 역사적 조류에도 모두 부합한다”고 큰 의미를 부여함.
 - 중국은 미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인권 문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등에서 갈등을 빚고 있으나 러시아와는 정상 간의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서방과의 대결에서 보조를 함께하며 정치, 외교, 군사, 경제협력 등에서 신밀월 관계를 구가하고 있음.

나. 미·일 관계

2016. 5. 1.

■ 日 집단자위권 행사 상정한 합동훈련은 선거후에(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3월말 안보법 발효로 가능해진 집단 자위권 행사 상황을 상정한 미국 등과의 합동훈련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함.
-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 미국 해군 주최로 하와이 일대에서 진행될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에서도 안보법 발효로 새로이 가능해진 활동과 관련한 훈련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교도는 전함.
- 이는 위헌 논란이 제기된 안보법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여전히 강한 상황에서 안보법을 적용한 훈련을 선거 전에 실시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日여야의원들 트럼프 반대는 한마음··미국가서 우려 표명(연합뉴스)

- 일본 여야 의원들이 미국을 찾아가 주일미군 철수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냄.
- 1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아베 정권에서 방위상을 지낸 자민당 오노테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중의원 의원과 농림수산상 경력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참의원 의원,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 외무상을 맡았던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중의원 의원 등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동맹 관련 심포지엄에서 트럼프의 주장을 잇달아 반박함.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질주중인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외교 정책에서 미군의 방위 의무에 걸맞는 수준의 재정부담을 수용하지 않으면 동맹국에 자주 방위를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함.

2016. 5. 3.

■ 백악관, 오바마 히로시마행 여전히 미정...사과가능성엔 “아니다”(연합뉴스)

- 백악관은 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방문하더라도 일본에 사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을 내비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전히 방문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일본에 서너 차례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히로시마 방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매번 가능성을 고려해왔다”고 설명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함.

2016. 5. 5.

■ 기껏 집단자위권했는데...日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 경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되자 일본 정부는 그가 내세우는 일본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경계하고 있음.
-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CNN 방송 인터뷰에서 미일동맹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비용(방위비) 만큼은 제대로 변상하라는 것”이라며 “50% 부담을 애기하는데 그것은 (내야 하는 것보다) 덜 내는 것”이라고 말함.
- 요미우리의 취재에 응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본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함.

■ 아베, 美대통령 누가 되든 긴밀협력·동맹강화(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결정되는데 대해 미국의 차기 대선(11월) 결과에 관계없이 새 정권과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힘.
- 아베 총리는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미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일미동맹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와중에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새 정권과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일미동맹을 한층 심화·강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싶다”며 “그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함.

- 아베는 또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이 한층 엄중해지는 와중에 일미 안보 태세의 중핵인 일미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의 기초라는 점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美日-中, 동남아국가 우군 만들기 외교전...돈 보따리 경쟁(연합뉴스)

-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끌어안으려는 미국·일본과 중국의 외교전이 뜨거움.
-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화,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이 동남아를 상대로 돈 보따리를 앞세워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음.
- 동남아를 순방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5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을 방문, 응우옌 쑤언 폭 총리를 예방하고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함. 기시다 외무상은 베트남, 필리핀 등이 중국과 겪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경제 지원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임.
- 이보다 하루 앞선 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분냥 보라치트 라오스 신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음.
- 이런 중국의 행보를 의식한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베트남, 9월 라오스를 각각 방문할 예정임.

2016. 5. 7.

■ 日 각료, 트럼프 한일 핵무장론 美에도 이익 안돼(연합뉴스)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지방창생(활성화)담당상은 6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거론한 한일 핵무장론에 대해 “한일 한일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가 약해지고 지역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므로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함.
 -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 강연을 통해 “일본에서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일동맹의 본질과 국제환경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정책을 펼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7일 전함.
-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주미 일본대사도 같은 심포지엄에서 트럼프를 겨냥해 “고립주의적인 미국을 보고 싶지 않다”며 “미국은 자국만을 생각하지 말고, 세계 속에서 강한 입장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함.

다. 미·러 관계

2016. 5. 1.

■ 미·러 공군기 위협거리 근접 빈발...우발적 군사충돌 우려(연합뉴스)

- 러시아 국경 인근 공역(空域)에서 러시아와 미국 공군기가 비정상적으로 근접 비행을 펼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양측의 군사충돌이 우려되고 있음.
- 러시아와 미국은 최근 들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양국 군용기들의 위험한 근접 비행 상황을 두고 비난전을 벌이고 있음.
- 전문가들은 빈발하는 양측 공군기들의 근접 비행 상황이 자칫 우발적 군사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음.

2016. 5. 2.

■ 나토군 사령관 “미국, 러시아 상대 정찰 강화해야”(연합뉴스)

- 퇴임을 앞둔 필립 브리드러브 나토군 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이 군사력을 늘리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이 부족했다며 정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 브리드러브 사령관은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단이 거의 없었다며 군대의 이동이나 테러리스트의 훈련 캠프를 감시하는 정찰 위성처럼 러시아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정보 수집 수단이 더 필요하다고 말함.
- 러시아는 나토군과 브리드러브 사령관이 러시아 국경에서 동맹국을 확대하고 발트 지역을 군사화하는 등 러시아를 침략하고 있다고 반박해 옴.

2016. 5. 3.

■ 러, 안보리 대북 성명에 ‘한미 군사활동 자제’ 추가 요구(연합뉴스)

-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언론 성명 채택이 늦어지는 것은 러시아가 성명에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짐.
- 타스 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현지시간) “(한반도) 역내의 증강된 군사 활동 수위를 낮출 것을 관련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보리 성명에 한미 양국의 군사활동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고 소개함.
-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관련국들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이 지역의 군사

력 증강 빌미로 삼아선 안된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 움직임 등을 강하게 비판해 옴.

■ 나토, 러시아 위협에 발트 지상군 창설 검토(연합뉴스)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따라 발트국가와 폴란드에 지상군 창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음.
-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을 떠나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트국가와 폴란드에서 순회 지상군을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는 나토가 옛 소련권으로 확장하는 동진 정책이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해왔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나토 동맹국인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등에 따라 양측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임.

2016. 5. 5.

■ 美 국무부 “러시아와, 시리아 알레포 휴전 합의”(연합뉴스)

- 현재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임시 휴전을 북부 도시 알레포로 확대하기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발표함.
-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전날 오후에 이 활동(휴전)을 알레포 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끝냈다”고 밝힘.
- 국무부는 휴전이 지속되는데 필요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시리아 민간인을 상대로 한 공격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국제적시리아지원그룹(ISSG) 공동의장국으로서 아사드 정권이 이란(휴전) 노력 준수를 위해 압력을 가하기 기대하며, 미국은 반군 측에 대해 (휴전 준수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러시아, 서부 지역에 3개 사단 신설·배치(연합뉴스)

-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악화한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와 러시아 관계가 양측의 군사력 대결로 치달으며 갈수록 긴장도를 높이고 있음.
- 양측이 상대방의 군사적 위협을 비난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서로 실제 무력 충돌에 대비한 접경 지역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5일 “러시아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직접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자국의 국가 이익에 위협이 되는 행동들을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커티스 스키퍼로티 신임 나토군 사령관 겸 유럽주둔 미군 사령관이 앞서 “러시아로부터 오는 위협에 맞설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면서 “나토는 현재 스스로 강국임을 과시하려는 러시아와 맞서고 있다”고 주장함.

2016. 5. 7.

■ **러시아 “한국 배치 사드, 리 겨냥 않는다”는 법적보증 있어야**(연합뉴스)

- 시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 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법적 보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 이같이 밝힘.
- 라브로프 장관은 러·일 양국 정상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기존의 모든 비핵화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전함.

라. 중·일 관계

2016. 5. 1.

■ **가까이하긴 멀고 척지면 괴로운 中日, 갈등관리 모드로 가나**(연합뉴스)

- 4월 3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가까이 하긴 멀고, 그렇다고 너무 척지면 괴로운 중일관계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국제회의 계기를 제외한 양국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으로는 4년 반 만에 이뤄진 이번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언론이 입회한 회담 초반 외교의 상궤를 벗어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본을 닦아 세움.
- 결국 이번 회담 이후 중일관계는 당분간 급격한 진전은 어렵겠지만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관리 모드’에 들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예상함.
- 우선 양국은 9월 중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총리 사이의 정상회담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국장의 중국 방문을 중국 측에 타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최근 보도함.

■ 중국, 외교장관회담서 일본에 역사적식 등 4개항 요구(연합뉴스)

- 중국은 지난달 30일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된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할 것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4개항의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NHK가 중국 외교부 발표를 인용해 보도함.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때 첫번째로 정치 면에서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하고 반성할 것”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구함. 그러면서 이들 사항은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정치적 기초라고 강조함.
- 두번째로 왕 부장은 “긍정적이고 건전한 의식으로 중국의 발전을 보고, ‘중국 위협론’과 ‘중국 경제 쇠퇴론’을 더 이상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함.
- 이어 왕 부장은 경제교류와 관련, “한쪽이 상대에 보다 더 의존하고 있다거나 상대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버리고 중국과 진정으로 대등하게 사귄 것”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함.
- 마지막으로 왕 부장은 “지역 문제와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정당한 이익과 우려를 존중하고 적시에 필요한 의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일본은 중국에 대항 의식을 버리고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의 위해 함께 힘을 다 해야 한다”고 밝힘.

2016. 5. 2.

■ 中 외교부장 對日 ‘4개항 요구’에 일본 정부 불쾌감(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측이 4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불쾌해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양국 외교장관 회담자료의 제목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중일 관계개선을 위한 4가지 요구를 제시했다”는 것이었음.
- 닷케이는 “왕이 부장은 4시간 20분간의 회담에서 유창한 일본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기시다 외무상에게 '당신이 진심과 성의를 갖고 중국에 온 것이라면 환영한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내에서도 ‘너무 나간 것으로 예의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함.

■ 日, 남중국해서 中과 갈등하는 필리핀에 훈련機 대여(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2일 볼테르 가르민 필리핀 국방장관과 전화 회담을 갖고 해상자위대 훈련기 최대 5대를 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NHK가 보도함.
- 나카타니 방위상은 필리핀 군이 해양 경계 및 감시 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

- 해상자위대의 훈련기인 'TC90' 중고기를 최대 5대 대여하고 기체의 조종 및 정비와 관련한 지원을 하기로 함.
- 나카타니는 기자회견에서 “해양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을 비롯한 연안국의 능력 향상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하다”며 대 필리핀 지원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함.

■ **방위상 방중 추진...안보법 설명·동중국해 논의(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올여름 중국을 방문해 창완취안(常万全) 국방부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일 전함.
-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간 안보관련법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하려는 것임.
- 다만, 중국 측이 나카타니 방위상의 중국 방문 수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2016. 5. 3.

■ **中·日, 베이징 고위급 접촉 끝나자마자 영유권 '신경전'(연합뉴스)**

- 사흘 전 베이징(北京)에서 이례적인 고위급 회동을 갖고 '관계 개선'을 약속했던 중국과 일본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또다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3일자 지면에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쓴 '일본이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 문제에서 남을 속이는 것을 반박한다'라는 장문의 글을 게재함.
- 류 교수는 이 기고문에서 일본 정부가 최근 각종 자료를 통해 센카쿠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는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며, 순전히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맹비난함.
- 양측은 올해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나, 오는 9월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또 다시 관계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걸림돌인 영유권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그런 시도들이 계속 걸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임.

2016. 5. 4.

■ **요미우리 “中, 여름 남중국해에서 육·해·공군 통합운동훈련 가능성”(연합뉴스)**

- 중국이 올 여름 남중국해에서 육·해·공군 통합운동 능력을 점검하는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함. 신문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도한 중국 군 개혁의 기동인 육해공 통합운동 체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이 같이 전망함.
- 요미우리는 ‘중국군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관계자’를 인용해 “시 주석이 내부의 강한 반대를 누르고 시동을 건 군 개혁의 성과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시 주석이 이르면 올해 여름 미국 및 주변국(필리핀·베트남 등)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육해공 합동 훈련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

2016. 5. 6.

■ **방중 日대표단, 리위안차오 부주석과 관계개선 노력 합의(연합뉴스)**

-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자민당 부총재와 리위안차오 중국 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하고 중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함.
-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중일의원연맹 회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 중인 고무라 부총재는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뇌들의 신뢰 구축이다. 빈번한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함.
- 그러면서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아베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되길 희망함.

마. 중·러 관계

2016. 5. 4.

■ **중국-러시아, 첫 미사일방어 시뮬레이션 훈련…사드 겨냥했나(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가 이달 중 처음으로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중국 국방부를 인용, 4일 보도함.
- 중국 국방부는 양국 군이 5월중에 러시아 국방부 대공 방어부대 과학연구센터에서 양국 사령부 최고 지휘관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사일 방어 컴퓨터 훈련(연습)'에 나선다고 발표함.
- 공천(空天·상공) 안전-2016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은 공중 방어, 미사일 방어 훈련을 통해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설명함.

- 중국과 러시아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서방과의 대결에서 보조를 함께하면서 신밀월 관계를 구축해 옴.

바. 일·러 관계

2016. 5. 7.

■ 방러 아베, 푸틴과 회담…평화조약 체결 협상 등 별 진전 못봐(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현지시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영토 분쟁과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접촉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함.
- 두 정상은 양국 국방·외무장관 협의체인 ‘2+2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조속한 일본 방문과 아베 총리의 9월 러시아 극동 방문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함.
- 두 정상은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기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함.
- 푸틴은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서방의 대러 제재에도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된 것이 아님을 과시하려 했을 것이라 분석임. 이날 회담에선 아베가 해결에 공을 들이고 있는 영토 문제와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관련해선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5.1	北 일부 주민도 종업원 집단탈북 사실 알아(자유아시아방송) 美정부, 북한인권 첫 제재 추진·北관리 제재리스트 작성중(연합뉴스) 北식당 여종업원 부모들, 유엔에 '송환 도와달라' 서한(연합뉴스)	
	5.3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北 인권침해에 강력 대응해야(연합뉴스) 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건의(연합뉴스) 케네스 배, 北서 온종일 돌나르고 석탄깎다·온갖 언어폭력도(연합뉴스)	
	5.4	북한 인권 전문가 "교황, 北 인권 유린과의 싸움에 나서야"(연합뉴스) 다루스만, 김정은 반인도 범죄 책임 물어(자유아시아방송)	
	5.5	유럽탈북민단체, 벨기에 루뱅에서 북한인권 강연회 개최(연합뉴스) 영 의회 '북 정보유입' 청문회(자유아시아방송)	
	5.6	<北당대화> 국제인권단체, 김정은에 "강제노동 중단" 촉구(연합뉴스)	
	5.7	日언론, 北 '70일 전투' 과정에서 50여명 사망(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5.5	北 美 인권공세는 사회주의 제도전복 책동 주장(연합뉴스) 北매체, 조선족 목사 北 살해설은 황당한 꾀변(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대북지원	5.5	인터넷으로 북한 어린이 수화 교육(연합뉴스) 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 정치적 문제 넘어 평화공존 증대해야(미국의소리)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5. 1.

■ 北 일부 주민도 종업원 집단탈북 사실 알아(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일부 주민이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실을 한국의 지인한테서 직접 들어 알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북한 북부지역의 30대 여성은 아시아프레스에 “한국의 지인과 전화통화에서 이 사실을 들었다”며 “한국에 간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집단 탈북 이후 국경경비가 강화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학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탈북자들의 가족과 친척들도 연좌제를 통해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함.

2016. 5. 3.

■ 美정부, 북한인권 첫 제재 추진…北관리 제재리스트 작성중(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양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2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됨.
-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연루된 (북한 정부의) 개인들에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임.
-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당국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일본 측에서는 카토 가즈노부 납치문제 담당상이 나와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함. 세미나에는 탈북자인 그레이스 조(25)씨가 나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함.

■ 北식당 여종업원 부모들, 유엔에 ‘송환 도와달라’ 서한(연합뉴스)

- 최근 집단탈북해 한국으로 간 중국 소재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의 부모들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딸들의 송환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3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주중 북한대사관은 여종업원 부모들이 지난달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자식들이 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함.
- 이들은 서한에서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남조선 정보당국의 집단유괴 납치로 반인륜범죄”라면서, 그럼에도 “남측이 남한사회를 동경해 딸들이 집단으로 탈북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우리 딸들은 조국의 품에서 태어나 성장한 행복한 아이들로 남부러울 것이 없다”며 “인권과 인도주의를 보호하는 사명을 띤 유엔 인권 당국이 딸들이 조속히 부모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호소한다”고 말함.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 北 인권침해에 강력 대응해야(연합뉴스)

-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3일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함.
- 폴슨 소장은 이날 과거청산통합연구원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과거청산의 의의와 과제’ 주제의 세미나에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 “(북한 내 인권 침해는) 인류 모두에게 모욕”이라고 말함.
- 폴슨 소장은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책임을 규명하는 일뿐만 아니라 과거청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고자 모니터링과 기록, 또한 인식 개선과 다양한 참여자의 역량 강화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인권사무소 활동은 전문가 그룹의 활동을 보완하고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임.

■ 국제종교자유위,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건의(연합뉴스)

- 미국의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고 규정하고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달라고 미국 국무부에 건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VOA)이 3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이 위원회는 2일 발표한 ‘2016 연례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건의함.
-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복송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 정부가 인권 침해에 연루된 북한 개인과 단체를 겨냥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함.

■ 케네스 배, 北서 온종일 돌나르고 석탄캐다…온갖 언어폭력도(연합뉴스)

- 북한에 2년여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는 2일(현지시간) 북한에서 온종일 중노동을 했고, 북한 관리들의 온갖 언어폭력에도 시달렸다고 말함.
- 배씨는 이날 석방 이후 CNN 방송과 한 첫 인터뷰에서 북한 억류기간의 삶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배씨는 “아침 8시부터 밤(저녁) 6시까지 돌을 나르고 석탄을 캐는 중노동을 했다”면서 “육체적 고통에 더해 북한 관리들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주는) 온갖 언어폭력도 당했다”고 털어놓음.
- 구체적으로 “북한의 한 검사는 끊임없이 내게 '누구도 당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당신은 사람들로 부터, 또 정부로부터 잊힌 사람이다. 당신은 금방 돌아갈 수 없다. 여기에서 15년은 있어야 한다. 60세가 돼서나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함.
- 배씨는 이어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준 많은 사람에게 매일 매일 감사해하고 있다”면서 “사실 여기 이 (CNN) 스튜디오에 나와 당신과 얘기하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735일간의 북한 억류기간은 매우 길었지만, 아무튼 지금 돌아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함.

2016. 5. 4.

■ 북한 인권 전문가 “교황, 北 인권 유린과의 싸움에 나서야”(연합뉴스)

- 교황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한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북한 인권단체 전문가의 지적이 나옴.
- 3일(현지시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미 서부협의회에 따르면 그레고 스칼라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IK)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아르헨티나 인터넷 매체인 인포바에(Infobae)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해 교황의 관여가 절실한 이유 등을 강변함.
-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교황 바오로 2세가 1980년대 동구 자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도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필요하므로, 북한 내 인권 유린 저지에 필요한 교황의 관심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국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서는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북한당국에 의해 선발된 인원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선발 조건을 보면 기혼으로 처자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자가 외국에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로 만약 국외 근로자가 도피하면 재북 가족은 처벌당한다”고 지적함.
-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북한 국외 근로자들이 봉급 중 90%를 북한당국에 강제 상납한다”면서 “세계 14개 국가에 5만~6만의 국외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을 통해

연는 수입은 연 1억2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함.

2016. 5. 5.

■ **다루스만, 김정은 반인도 범죄 책임 물어야(자유아시아방송)**

- 4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황 토론회에 초청된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김정은 제1위원장과 수뇌부에 물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냄.
- 일본 납치문제담당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전반적인 반인도적 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함.
-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2년 전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모두 무시하고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데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함.
-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북한의 지독한 인권유린과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공조해야 한다”고 말함.

■ **유럽탈북민단체, 벨기에 루뱅대서 북한인권 강연회 개최(연합뉴스)**

- 유럽의 탈북민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유럽총연)는 4일(현지시간)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강연회를 개최함.
- 루뱅대 동아시아학부 정규 강좌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장만석 유럽총연 회장은 북한 정권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으면서 북한 주민을 기아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함.
- 장 회장은 북한이 6일부터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주민들을 소위 70일 전투로 내몰아 혹사시키고 있다면서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당대회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유럽 탈북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도록 권고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김정은의 ICC 회부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영 의회 ‘북 정보유입’ 청문회(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회의 초당적 모임인 ‘북한에 관한 상?하원 공동위원회(APPG on North Korea)’가 오는 19일 북한의 정보통제를 뚫는 방안(Breaking North Korea’s Information Blockade)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임.

- 상하원 공동위원회 사무국의 제임스 버트(James Burt)씨는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활동을 하는 북한인권단체 노체인(No Chain for North Korea)의 정광일 대표가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힘.
- 정 대표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노체인의 활동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이 단체 헨리 송 북미대표(North American Director)가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2016. 5. 6.

■ <北당대회> 국제인권단체, 김정은에 “강제노동 중단” 촉구(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주민 인권유린을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RFA는 HRW가 지난 3일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 명의로 김 제1위원장에게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을 무보수 강제노동에 동원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가입도 촉구했다고 전함.
-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 제1위원장이 2011년 집권 이후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변화상은 찾아볼 수 없다”며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중단할 때가 됐다”고 말함.

2016. 5. 7.

■ 日언론, 北 ‘70일 전투’ 과정에서 50여명 사망(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일 열린 노동당대회에서 '70일 전투'의 성과를 강조했지만 무리한 목표를 내거는 바람에 5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전함.
- 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70일 전투 과정에서 백두산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함.
- 또 북한 북부 삼지연~혜산 구간 철도 공사현장에서도 토사 붕괴로 12명이 숨졌고, 강풍 속에서도 무리하게 조업에 나선 선박이 침몰하며 선장 등 8명이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고 전함.
- 이 신문은 “건설 현장에 배치된 병사들은 규정(800g)보다 적은 하루 500g의 식량을 배급받는 바람에 영양실조가 만연해 5%가량이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배고픔에 가축·가전제품을 훔치고 금품을 강탈하는 병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5. 5.

■ 北, 美 인권공세는 사회주의 제도전복 책동 주장(연합뉴스)

- 북한이 학술지를 통해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공세에 대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내부와해 공세”라며 비난함.
- 연합뉴스가 5일 입수한 북한 학술지 ‘정치법률연구’ 2016년 제1호는 ‘미국의 대조선 인권공세의 반동적 본질’에서 “미국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현의 하나로 인권 공세의 도수를 높이고 있으며 인권문제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자주권 유린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주장함.
- 특히 “최근 미국의 조종하에 채택 발표된 유엔의 반공화국 인권결의에서는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붕괴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는 것이라고 반발함.
- 논문은 “나라와 민족마다 역사와 풍습, 경제, 문화발전 수준과 생활방식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에 똑같이 맞는 유일한 인권 기준이란 있을 수 없으며, 특정한 나라와 집단의 문명과 기준이 세계의 유일한 기준으로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또 미국이 북한 인권을 빌미로 대북제재와 처벌을 논하는 것은 “인권문제가 단순한 이론투쟁이 아니라 우리(북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는가 지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첨예한 정치 사상적, 군사적 대결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오직 선군의 위력으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독려함.

■ 北매체, 조선족 목사 北 살해설은 황당한 궤변(연합뉴스)

- 최근 중국 지린(吉林)성에서 발생한 장백교회 한모 목사 피살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우리나라 일각에서 제기된 데 대해 북한 매체는 5일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고 또 하나의 반(反) 공화국 모략소동”이라고 주장함.
-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지난 4월 30일 한 목사가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괴뢰 당국은 또다시 상투적인 북(北) 소행설을 떠들어댔다”며 이같이 말함.
- 이 매체는 “궁지에 빠지게 되면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우리와 연관시키면서 민심과 여론의 이목을 딛 데로 돌려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획책하는 것은 남조선 괴뢰 당국이 상투적으로 써오던 고질적인 악습”이라고 비난함.
- 이어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집단유인납치만행을 합리화하고 저들에게로 쏠리는 내외의 분노와 비난 여론을 우리에게 돌려보려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자루 속의 송곳은 절대로 감출 수 없는 법이며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목소리를 높임.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5. 대북지원

2016. 5. 5.

■ 인터넷으로 북한 어린이 수화 교육(연합뉴스)

- 스위스에 있는 대북인도지원단체 아가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가페는 독일에 있는 대북 장애인지원단체 ‘투게더-함흥(Together-Hamhung)’과 함께 북한 내부 통신망을 이용해 북한말 수화, 즉 ‘조선손말’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임.
- 현재 북한에 있는 청각장애인, 즉 농아(聋아)를 위해 세워진 학교는 봉천과 봉산, 성천, 운진, 시중, 삼봉, 함흥, 그리고 원산농아학교 등 모두 8곳임.
- 아가페는 북한당국이 전체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우선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수화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북민협, 대북지원 20년 백서...정치적 문제 넘어 평화공존 증대해야(미국의소리)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은 대북지원 사업 20주년을 기념해 그 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고 지난 20년 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북지원 사업이 추진돼 왔다고 이같이 밝힘.
- 특히 남북 고위급 회담 등 대부분의 남북한 당국간 접촉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민간 대북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단순한 긴급구호 차원에서 벗어나 점차 개발지원적 사업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함
- ‘대북지원 20년 백서’는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활동이 남북관계와 남북한의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축산 분야를 비롯해 보건의료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 그리고 산림녹화 분야 등의 개발지원성 사업들로 다양화돼 왔다고 설명함.

- 백서는 이처럼 지난 20년 간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개발협력 방향으로 확대, 추진돼 왔지만 남북관계와 그 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녀왔다고 지적함.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정책을 어떻게 선순환 하는 방향으로 연계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함.